



2026 대각성전도집회 특별 구역모임

REST:내 영혼의 따뜻한 집을 찾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누가복음 14:15~24

-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

1세기 유대 상류 사회에서의 초대 방식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초대를 청하고,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대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초대를 응해 놓고, 두 번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초대된 사람에게 큰 모욕이었습니다. 잔치에 온다고 하여 준비를 다했는데 핑계를 대고 못 온다고 하는 것은 초대된 사람을 크게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초대받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 잔치로 초대하신다면 그것은 초대 중의 최고의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받은 사람들은 한결 같이 핑계를 대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큰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처음 초대 받은 손님들은 상류 계층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돈 그리고 가족 문제에 얽매인 나머지 하나님을 냉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시고 천국 잔치에 적합한 손님들을 찾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멸시하던 이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새롭게 초대받은 이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 받던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처음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더라도 차별 없이 구원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누구라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씨를 뿌리며

1. 거대한 잔치 준비가 마무리 되는 시간이 되자 잔치의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17절)

2.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는 핑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18절 :

.....

.....

.....

2) 19절 :

.....

.....

.....

3) 20절 :

.....

.....

.....

3. 이미 잔치 초대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못 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21절)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

.....

.....

.....

.....

4. 그래도 아직 잔치에 자리가 남아 있자 잔치 주인은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23절)

5.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들이 잔치 당일에 여러 이유로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은 한 마음이 되어 끝까지 잔치 자리를 채우는 노력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모습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나눠 봅시다.

6. 다음 글을 읽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초청하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 선교사와 네 명의 동역자들은 바닷가에서 후아오라니 부족민을 만났습니다. 원주민들은 창을 들고 인사를 건넸으며, 일행은 그날 그 자리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엘리엇은 선교지로 떠나기 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두루 나누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해야 한다. 생각해 보라. 하늘 보좌에서 “가라!”는 음성이 들린다. 사망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린다.

지하 세계의 저주받은 영혼들조차도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이 고통 받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른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한가로이 집에 앉아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훗날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평화가 부족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후아오라니 부족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시간에 번거롭게 한다고 귀찮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굴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권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의 시도에 하나님께서 기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맥을 1cm 앞까지 파놓고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포기해서도, 중단해서도 안 되는 존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7. 이번 새생명축제 기간에 그동안 기도해온 ‘기도 태신자’ 중 꼭 초대하려고 하는 ‘초청 태신자’는 누구이며, 어느 집회에 참석하여 결신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기록해 봅시다. 서로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태신자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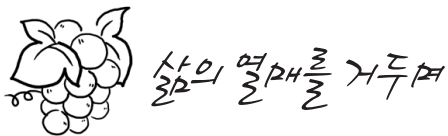
태신자 2:

.....

.....

.....

태신자 3: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 열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요한복음 6:38~40)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요한복음 12:47).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마가복음 1:17).

그동안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생명축제로 열리는 대각성전도집회에 초청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새생명축제에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뜹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흐르면 영혼의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권해서 안 되면 눈물로, 금식으로 엎드려서라도 놀라운 영혼 구원의 무지개가 온 교회에 가득 한 그날을 꿈꿔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